

청년 니트(NEET)와 중년 니트(NEET) 연구

남재량*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년 니트(NEET) 관련 연구가 이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청년 문제들을 분석하는 중요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제 니트(NEET)라는 개념을 청년을 넘어 중년을 비롯한 다른 연령층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중년을 비롯한 다른 연령층에서도 비구직 니트가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40대 중년의 비구직 니트 증가 추세는 30대에 비구직 니트이었던 사람들이 10년 후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의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청년 시절의 비구직 니트 경험이 인생에 있어 항구적인 상처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끔 한다. 나아가 중년 비구직 니트의 증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10년 후에 새롭게 비구직 니트에게 되는 확률의 증가와도 관련되어 있었다.

주요용어 : 비구직 니트(NEET), 중년 니트(NEET), 니트 탈출률, 니트 진입률

1. 서론

한국 청년고용 문제의 본질을 청년 니트(NEET)에서 찾고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지도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청년 니트 문제에 대해 접근해 왔으며, 이를 통해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새로운 특징들이 밝혀진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단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데에 그치지 않았으며, 많은 해외 연구자들도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여 왔다. 특히 국제기구들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OECD는 2014년의 연구를 위시하여 이후 각국의 청년 니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 ILO(2017)도 이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EU 전체에 대한 연구(Bruno et al., 2014)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국내외 연구들이 오늘날 청년 고용 문제를 청년 니트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 노동시장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경기와 무관하게 서서히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청년 니트가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 실태와 이의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에서 분석기간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이었으며 분석대상은 15-34세 청년이었다.(남재량, 2006a)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므로 당시 20대 청년은 이제 40대가 되었고 30~34세였던 사람들은 이제 50대에 접어들게 분석대상들이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가는 동안 이들에 대한 연구들도 심화되어 갔다. 본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연구 가운데 하나는 청년 시절의 니트(NEET)¹⁾ 경험이 당시의 청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이후 6~9년이 경과한 후의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인 바 있다.(남재량, 2013) 즉 니트 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6~9년 이후 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으며 취업상태에 있더라도 니트 비경험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작게는 3% 수준에서 많게는 10% 이상 더 낮았다. 20대나 30대 초반 청년 시절의 니트 경험이 그 당시 뿐만 아니라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인 30대나 40대 근로자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시절의 니트 경험이 적어도 취업확률과 임금수준에 있어서 일정 부분 중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청년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년에서도 니트(NEET)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인가? 만약 존재한다면 이들의 규모는 과연 얼마나 되고 이들의 시간에 걸친 변화는 어떠한가? 만약 청년에서 뿐만 아니라 중년에 이르러서도 니트(NEET)가 존재하고 중년의 니트가 청년 시절의 니트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면 청년 니트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차원을 달리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나아가 니트(NEET)의 개념을 이제까지처럼 청년에 국한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연령층의 노동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으로부터 노동시장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있어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과연 청년이 아닌 중년, 나아가 고령 노동력에 대해서도 니트(NEET)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기존의 접근들과 시각을 상당히 달리 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하나의 작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의식의 많은 부분에 대한 분석과 설명은 이후에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즉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앞서 청년 니트와 함께 중년 또는 고령 니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청년 니트의 경험이 중년의 경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1) 한 가지 미리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본 연구가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니트(NEET)의 개념은 남재량(2006a)의 정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일을 하거나 통학을 하지도 않고 가사노동(육아, 가사 등)을 하고 있지도 않으며, 배우자도 없는 특정 연령의 사람을 일컫는다.

II. 청년 니트(NEET)의 추이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청년 니트는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1996년 26.7만 명에 불과하였던 비구직 니트, 즉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 않은 니트가 1998년 41.6만 명으로 증가하며(남재량, 2006a, 2012, 2013), 2000년에 46.6만 명(표 1)으로 증가한다. 본 연구는 <표 1>에서 2000년 이후에 대해 청년 니트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시계열에 대한 보정을 반영한 결과이다.²⁾

<표 1> 청년 니트(NEET) 현황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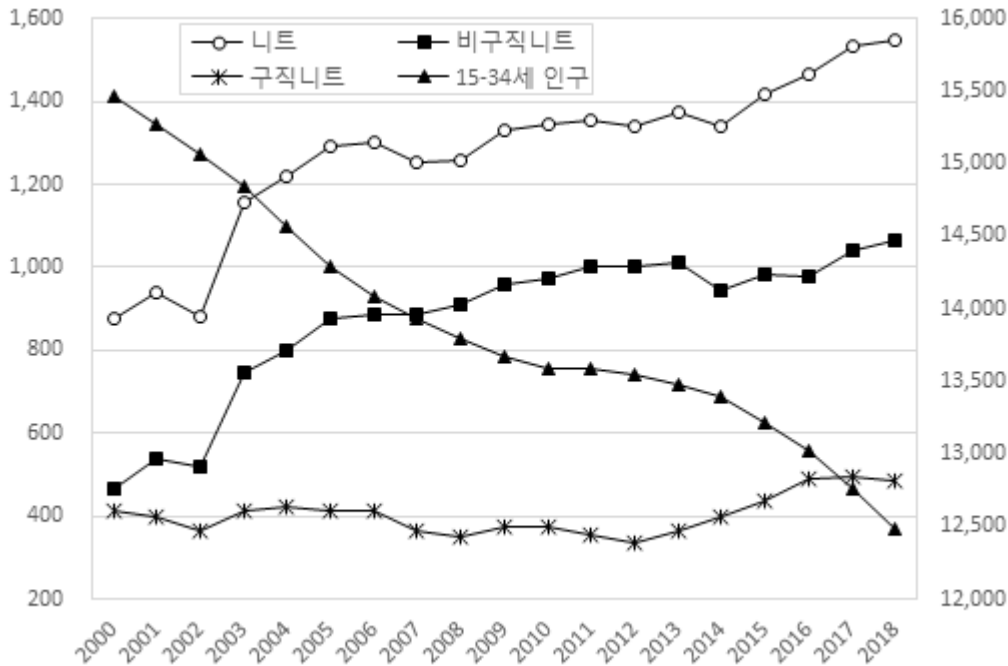
| | 15-34세 인구 | 니트 | 구직니트 | 비구직니트 | 니트아님 | 비구직니트 비율 |
|------|-----------|-------|------|-------|--------|----------|
| 2000 | 15,459 | 877 | 411 | 466 | 14,582 | 3.0 |
| 2001 | 15,267 | 938 | 398 | 540 | 14,329 | 3.5 |
| 2002 | 15,062 | 883 | 364 | 519 | 14,179 | 3.4 |
| 2003 | 14,847 | 1,158 | 412 | 746 | 13,689 | 5.0 |
| 2004 | 14,575 | 1,221 | 424 | 798 | 13,354 | 5.5 |
| 2005 | 14,287 | 1,290 | 415 | 875 | 12,997 | 6.1 |
| 2006 | 14,089 | 1,299 | 411 | 888 | 12,790 | 6.3 |
| 2007 | 13,931 | 1,253 | 367 | 886 | 12,678 | 6.4 |
| 2008 | 13,797 | 1,260 | 348 | 912 | 12,538 | 6.6 |
| 2009 | 13,672 | 1,331 | 374 | 957 | 12,341 | 7.0 |
| 2010 | 13,593 | 1,344 | 372 | 972 | 12,248 | 7.2 |
| 2011 | 13,591 | 1,355 | 354 | 1,000 | 12,237 | 7.4 |
| 2012 | 13,545 | 1,339 | 337 | 1,002 | 12,206 | 7.4 |
| 2013 | 13,481 | 1,375 | 365 | 1,010 | 12,106 | 7.5 |
| 2014 | 13,388 | 1,339 | 397 | 942 | 12,049 | 7.0 |
| 2015 | 13,215 | 1,419 | 436 | 983 | 11,796 | 7.4 |
| 2016 | 13,022 | 1,467 | 488 | 979 | 11,555 | 7.5 |
| 2017 | 12,754 | 1,536 | 497 | 1,039 | 11,218 | 8.1 |
| 2018 | 12,478 | 1,550 | 486 | 1,064 | 10,928 | 8.5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MDIS)

2)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의 과거 시계열(2000.7월~2018.12월)을 소급 보정후 공표(2019.2.13.일)하였다. 통계청(MDIS, 자료 이용 상의 주의사항)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모수추정의 근간이 되는 추계인구 작성 방법이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변화하고, 과거 시계열도 소급보정”되었다. 그리고 “인구통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7월~2018.12월(18년 6개월간)간의 소급보정된 모수추정용 인구를 적용하여 새로운 표본가중치를 산출하고, 공표자료(KOSIS,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재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가중치를 사용하여 니트와 관련된 자료들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청년니트 규모 및 추이

(단위 : 천명)



주 : 니트, 구직니, 비구직니트는 왼쪽 축, 15-34세 인구는 오른쪽 축을 척도로 함.

<그림 1>은 <표 1>의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린 것이다. 이 그림과 표에서 보듯이 비구직니트는 2002년 51.9만 명에서 74.6만 명으로 1년만에 무려 22.7만 명이나 급증한다. 이후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되어 2011년에 10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의 101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2016년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2017년부터 비구직 니트의 증가세는 다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2013년부터 구직 니트, 즉 니트 가운데 구직 활동을 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2017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에 따라 이들까지 포함한 니트의 규모는 2018년에 155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니트 및 비구직 니트의 증가는 해당 연령층인 15~34세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이들 인구 규모는 분석기간 동안 예외 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 1,400만 명을 넘던 15~34세 인구는 2018년에 1,1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이들 인구는 정확히 365.4만 명이 감소하였다. 해당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비구직 니트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비율인 비구직 니트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표 12>에서 보듯이 비구직 니트 비율은 2000년 3.0%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 2018년에 8.5%를 기록하고 있다. 15~34세 인구 가운데 일을 하지도 않고 구직을 하지도 않으며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육아나 가사를 하고 있지도 않고 배우자도 없는 사람의 비율이 8.5%를 기록한다는 것은 무척 놀라운 사실이다.

III. 청년 니트(NEET)와 중년 니트(NEET)

1. 20대 니트(NEET)와 30대 니트(N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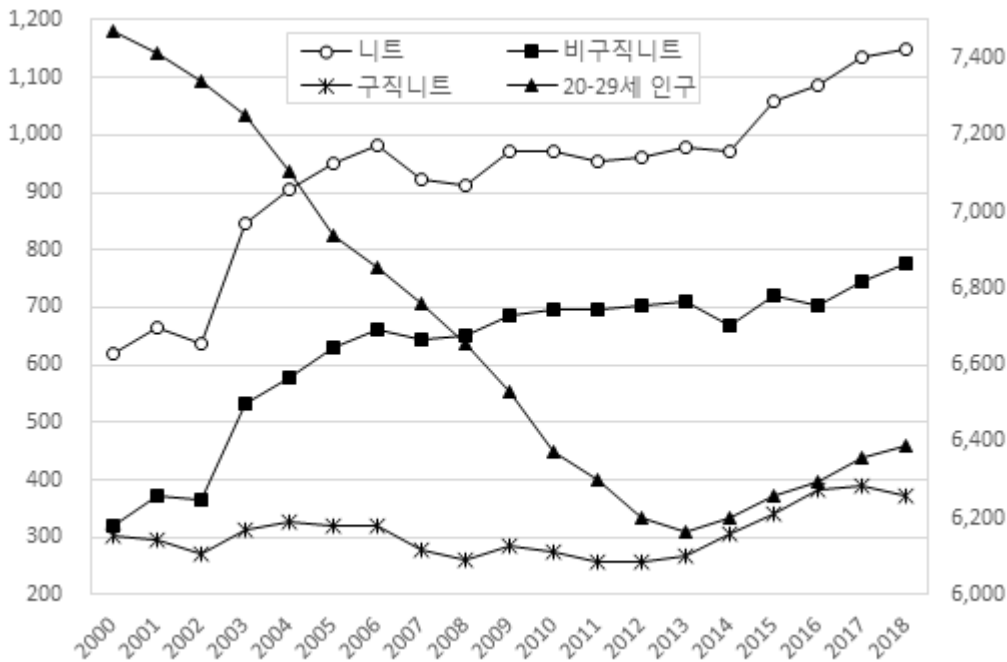
이제 연령층을 보다 세분하여 니트 관련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2>와 <그림3>은 각각 20대와 30대 연령층의 니트 관련 특징들을 보여준다. 앞에서 보았던 <그림 1>의 경우와 달리 20대 연령층의 인구가 2013년을 고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구분되는 모습일 뿐 비구직 니트와 니트의 증가는 그리 다르지 않다. 20대 비구직 니트의 규모는 2018년에 8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30대의 비구직 니트는 <그림 3>에서 보듯이 30만 명 남짓한 수준으로 20대의 경우에 비해 그 수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의 증가세는 20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명하다. 다만 30대 인구 수는 20대의 경우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즉 30대 인구는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을 지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이후 해당 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30대 비구직 니트의 증가 추세는 가파르게 이어지며 2009년 이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이처럼 20대의 경우 비구직 니트는 2000년 31.8만 명 남짓한 수준에서 2018년 77.7만 명으로 45.9만 명, 즉 144.3% 증가한다. 반면 30대 비구직 니트는 2000년 6.8만 명에서 2018년 30.5만 명으로 23.7만 명 증가하는데, 이는 348.5%에 해당한다. 이는 중년 니트와 관련하여 심상치 않은 전조이다.

<그림 2> 20대 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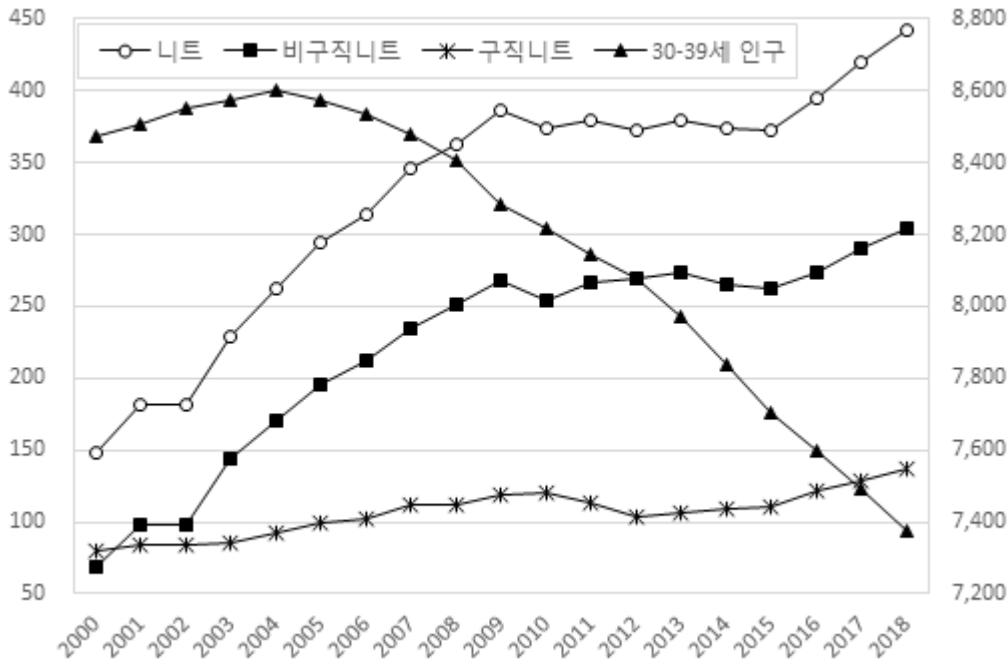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주 : 니트, 구직니, 비구직니트는 왼쪽 축, 15-34세 인구는 오른쪽 축을 척도로 함.

<그림 3> 30대 니트

(단위 : 천명)



주 : 니트, 구직니, 비구직니트는 왼쪽 축, 15-34세 인구는 오른쪽 축을 척도로 함.

2. 중년 니트(N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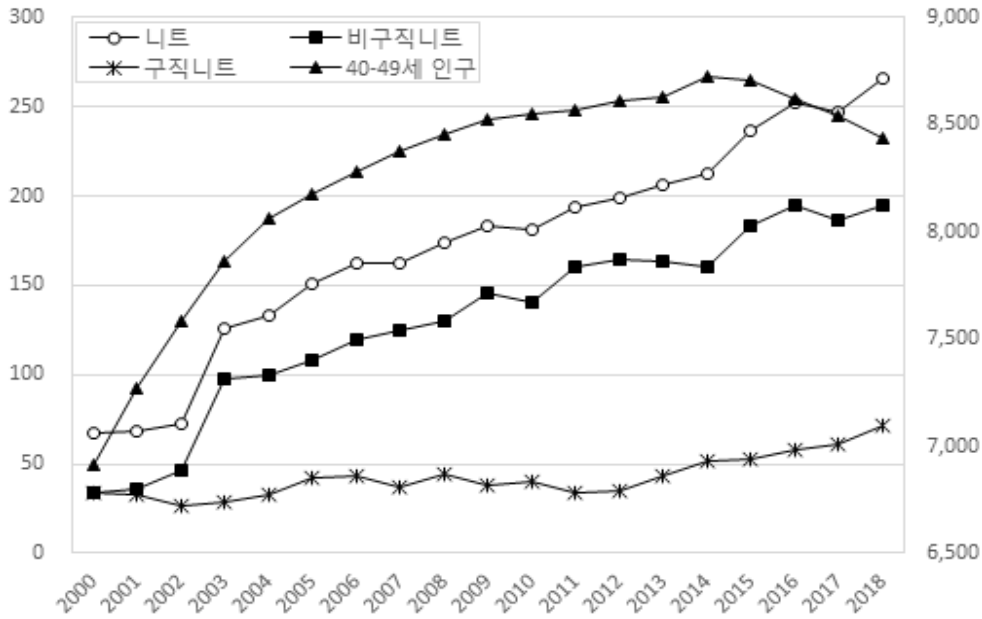
40대의 연령이면 중년층(the middle aged)이라 불리도 좋을 것이다. <그림 4>는 40대 인가와 40대 니트 관련 자료들을 그림으로 그려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40대 인구는 2014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40대의 연령층에서 비구직 니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표 2>에서 보듯이 2000년에 3.3만 명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중년의 비구직 니트는 <그림 4>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대와 30대의 비구직 니트는 2010년 무렵부터 7년 가량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 반면, 40대 중년 니트는 이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그 결과 2018년에 이르면 이들 규모는 19.5만 명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16.2만 명의 중년 비구직 니트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490.9% 증가율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 니트, 즉 구직 니트의 수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구직 니트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라 오르내림을 거듭할 뿐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는데, 40대의 경우 매우 분명한 증가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구직 니트까지 포함한 니트 전체 규모가 그림에서 보듯이 최근들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4> 중년 니트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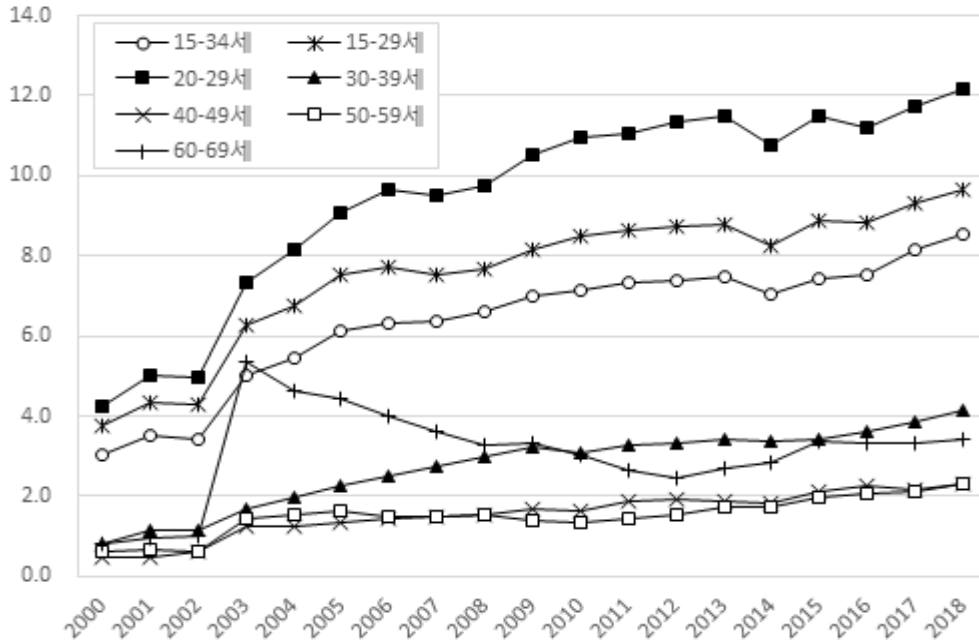
<표 2> 중년 니트(NEET) 현황

(단위 : 천명, %)

| 연도 | 40-49세 인구 | 니트 | 구직니트 | 비구직니트 | 니트아님 | 비구직니트 비율 |
|------|-----------|-----|------|-------|-------|----------|
| 2000 | 6,909 | 68 | 34 | 33 | 6,841 | 0.5 |
| 2001 | 7,270 | 68 | 33 | 36 | 7,202 | 0.5 |
| 2002 | 7,580 | 73 | 27 | 46 | 7,507 | 0.6 |
| 2003 | 7,864 | 126 | 28 | 98 | 7,738 | 1.2 |
| 2004 | 8,065 | 133 | 33 | 100 | 7,932 | 1.2 |
| 2005 | 8,174 | 150 | 42 | 109 | 8,024 | 1.3 |
| 2006 | 8,285 | 162 | 43 | 119 | 8,123 | 1.4 |
| 2007 | 8,373 | 162 | 37 | 125 | 8,210 | 1.5 |
| 2008 | 8,456 | 174 | 44 | 130 | 8,282 | 1.5 |
| 2009 | 8,525 | 184 | 38 | 145 | 8,342 | 1.7 |
| 2010 | 8,548 | 181 | 40 | 140 | 8,367 | 1.6 |
| 2011 | 8,567 | 194 | 34 | 160 | 8,373 | 1.9 |
| 2012 | 8,613 | 199 | 35 | 165 | 8,413 | 1.9 |
| 2013 | 8,633 | 207 | 44 | 163 | 8,426 | 1.9 |
| 2014 | 8,721 | 212 | 52 | 161 | 8,508 | 1.8 |
| 2015 | 8,709 | 236 | 53 | 184 | 8,473 | 2.1 |
| 2016 | 8,621 | 253 | 58 | 195 | 8,369 | 2.3 |
| 2017 | 8,541 | 247 | 61 | 187 | 8,294 | 2.2 |
| 2018 | 8,438 | 266 | 71 | 195 | 8,172 | 2.3 |

<그림 5> 연령집단별 비구직니트 비율

(단위 : %)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 40대의 중년 나이에 2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일자 리조차 알아보고 있지 않은 비구직 니트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중 년 니트는 강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이들의 규모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중 년 인구의 증가와 함께 중년 니트의 수가 증가하여 왔으므로, 비구직 니트의 비율은 2018년에도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40대 중년 인구가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중년 니트의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중년 니트 비율의 증가도 이제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제 중년 또는 그 이상 연령층의 비구직 니트 비율을 청년층의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도 록 하자. <그림 5>는 이를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20대의 비구직 니트 비율이 가장 높고 눈에 띈다. 2000년에 4% 남짓한 수준에서 2018년에 12%를 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 다음으로 비구직 니트 비율이 높은 경우는 검은 세모를 가진 실선으로 나타낸 30대이다. 2000년에 30대의 이 비율은 <부표 1>에서 보듯이 0.8%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후 그림에서 보듯이 지속적 으로 상승하여 2018년에 이르면 4.1%로 높아진다.

이들 20대와 30대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엑스(x) 표시를 가진 40대 중년의 비구직 니트 비율 은 그림에서 보듯이 흰색 네모를 가진 50대의 경우와 유사하게 상승하고 있다. 즉 40대의 경우는 2000년의 0.5%에서 2018년에 2.3%로 상승하고 있으며, 50대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40대 중년 뿐만 아니라 50대 연령층에서도 니트의 증가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40대와 50대, 특히 40 대의 니트화(NEET化) 문제는 20대나 30대의 경우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향 후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현상과 이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을 것이다.³⁾

IV. 비구직 니트(NEET) 동학

이제 비구직 니트를 추적하여 관찰함으로써 이들의 동학(dynamics)을 분석하여 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 비구직 니트의 증가가 동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니트 탈출 확률의 저하에 주로 기인하는지 아니면 니트 진입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양자 모두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중년 니트의 증가가 청년 니트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1. KLIPS와 니트(N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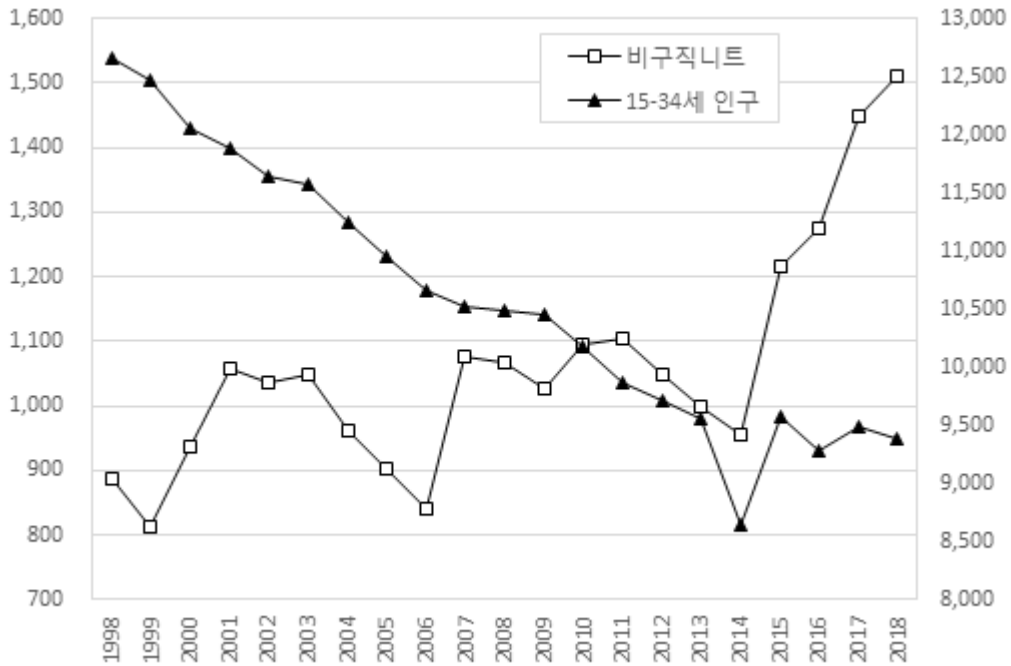
먼저 분석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니트 관련 특징들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를 패널로 구축하여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교체되는 표본의 수가 많아 분석상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표본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통한 분석에 장점을 가진 자료는 패널자료이다. 이러한 패널자료들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들 수 있다. 이 조사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패널조사로서 특히 노동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폭 넓고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LIPS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여 비구직 니트의 동학을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KLIPS 자료를 사용하여 <그림 1>과 마찬가지로 15~34세 청년 비구직 니트의 특징을 살펴보자. <그림 6>은 이를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KLIPS 상의 비구직 니트는 2000년에 93.8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던 앞의 46.6만 명 보다 더 크다. 2018년에도 KLIPS 상에서 이 규모는 151.1만 명으로 나타나 경찰에서 106.4만 명보다 더 많으나 대체로 양자 간의 격차는 일정한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KLIPS 상에서도 청년 비구직 니트의 규모가 93만 명에서 151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림 6>에서도 이러한 증가추세를 볼 수 있다. 경찰에서 보았던 비구직 니트의 증가세가 KLIPS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 것이다. 다만 KLIPS 상에서 2015년부터 비구직 니트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앞에서 보았던 모습과 다소 구분된다.

3)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연령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2002년에 비해 2003년의 비구직 니트 비율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록에 있는 <그림 A2>의 60대 니트에서 비구직 니트의 수가 급증하는 것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5>에서도 60대의 비구직 니트 비율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부표 1>에서 보듯이 이 비율이 2002년 1.0%에서 2003년 5.4%로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2002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하여 2003년 매우 큰 충격을 가져왔던 카드대란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외환위기 하에서도 비구직 니트는 경기와 무관한 모습을 보였으나, 카드사태와 관련하여 본고가 살펴보고 있는 모든 연령층에서 비구직 니트 비율이 급증하고 특히 60대 연령층이 급격히 비구직 니트화 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60대의 이 비율은 이후 2012년의 2.4%까지 하락하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8년에 3.4%에 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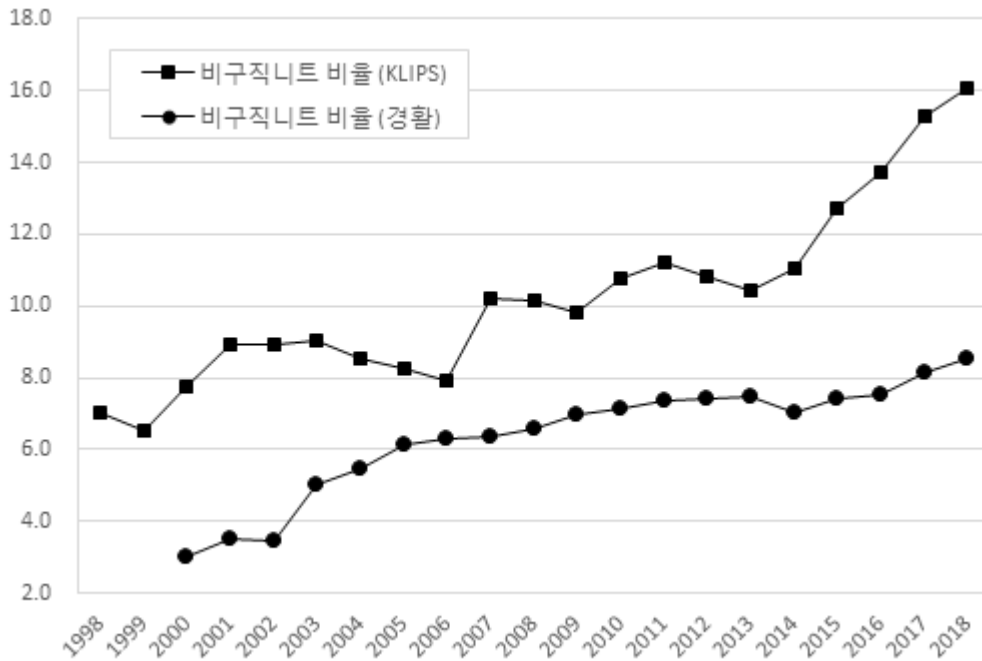
<그림 6> KLIPS 상의 비구직 니트와 15-34세 인구 및 그 변화

(단위 : 천명)



<그림 7> 비구직 니트 비율

(단위 : %)



비구직 니트의 규모가 경찰의 경우에 비해 KLIPS 상에서 더 크게 추정되고 있어 비구직 니트의 비율 역시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림 7>에서 보듯이 분석기간 상의 모든 시점에서 KLIPS 상의 비구직 니트 비율이 경찰의 경우에 비해 높다. 그러나 이 비율의 증가추세는 두 시계열 모두에서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관찰된다. 이러한 정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KLIPS 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자.

2. 비구직 니트(NEET) 탈출과 진입

니트(NEET)의 개념은 특정 시점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태로 정의된다. 즉 저장(stock) 개념이다. 이러한 저량은 유량(flow)에 의해 결정된다. 즉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 니트(NEET)로 새로 진입하는 정도와 여기에서 벗어나는 정도에 의해 니트의 크기가 결정된다. 패널자료를 사용하면 우리는 이러한 유량변수들을 측정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비구직 니트의 증가가 어떤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 지를 알아낼 수 있다.

유량분석을 위해 다음의 <그림 4>와 같은 행렬을 생각해 보자. 그림의 첫 번째 열과 첫 번째 행은 각각 전기($t-1$ 시점)와 금기(t 시점)의 비구직 니트 여부를 나타낸다. 비구직 니트 상태를 N으로 그리고 비구직 니트가 아닌 상태를 O로 나타내자. 그러면 일정기간, 예컨대 1년 동안 발생한 상태 변화는 <그림 4>와 같은 4개 원소를 갖는 Markov 이행확률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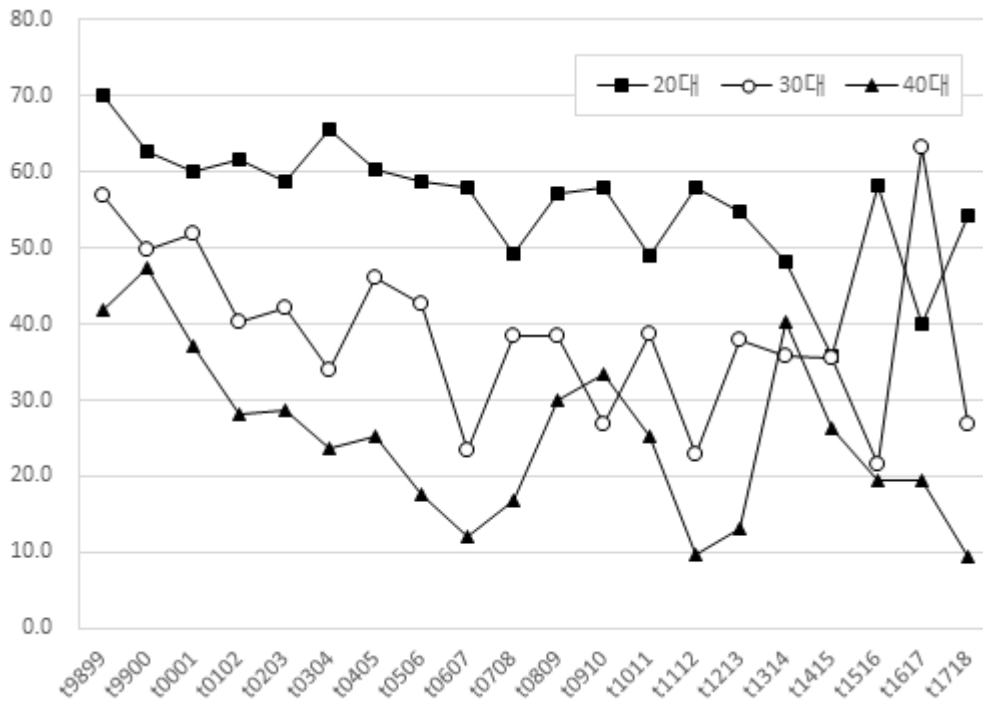
<그림 8> Markov 이행확률 행렬

| $(t-1)$ | t | N_t | O_t |
|-----------|-----|---------|---------|
| N_{t-1} | | NN (nn) | NO (no) |
| O_{t-1} | | ON (on) | OO (oo)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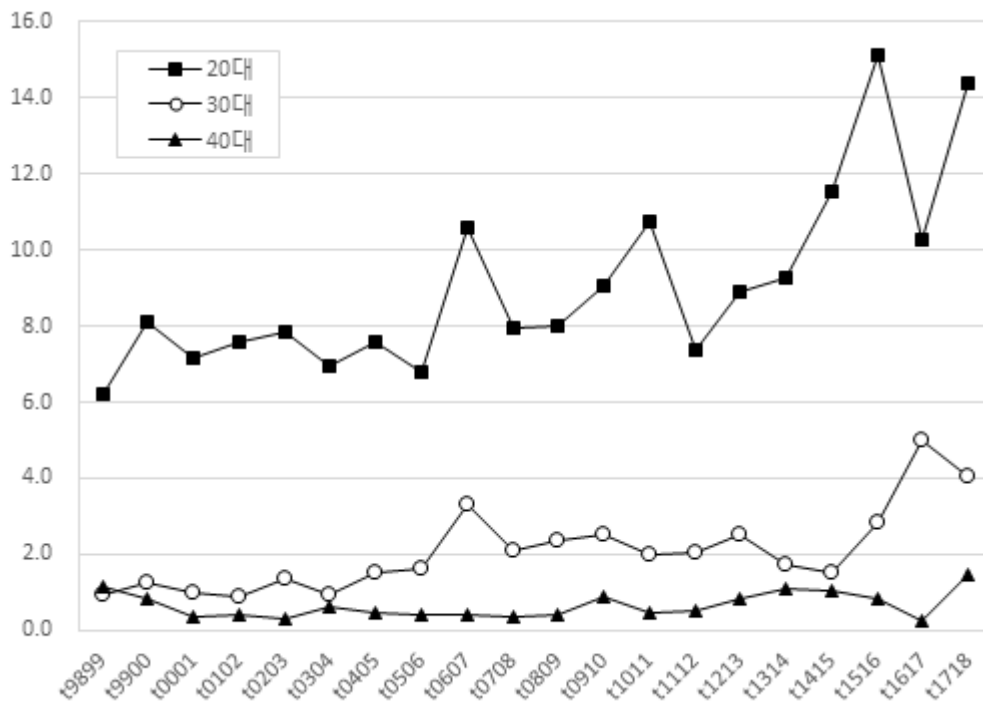
행렬의 각 원소들 가운데 대문자로 표기된 원소는 ($t-1$)시점의 특정 상태에서 t 시점의 특정 상태로 옮겨간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 소문자로 나타낸 원소는 이들 이행자 수를 각각 원래상태($t-1$ 시점)의 사람 수로 나눈 것이다. 따라서 소문자 원소들은 ($t-1$)시점에서 t 시점의 상태로 이행할 확률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행확률들을 각 행별로 합치면 1이 된다. KLIPS 자료를 사용하면 이러한 이행자 수와 이행확률들을 구할 수 있다.

<그림 9>와 <그림 10>은 이러한 이행확률들 가운데 비구직 니트에서 탈출확률과 비구직 니트로 진입확률을 그린 것이다. 즉 <그림 8>의 원소들 가운데 no와 on을 연령집단별로 구하여 제시한 것이다. 비구직 니트 탈출률을 나타내는 no가 <그림 9>에 제시되어 있고 비구직 니트 진입율을 나타내는 on은 <그림 10>에 해당한다.

<그림 9> 연령집단별 비구직 니트 탈출률



<그림 10> 연령집단별 비구직 니트 진입률



이 두 그림에서 보듯이 검은색 네모를 가진 실선인 20대 연령층의 비구직 니트 탈출률은 전반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는 반면, 진입률은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 따라서 20대 비구직 니트의 증가는 탈출률의 감소와 진입률의 증가가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30대의 경우도 탈출률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이행에서 탈출률이 크게 증가한 예외적인 경우를 논외로 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반면 30대의 진입률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특히 최근 들어 이러한 증가세가 가파르다. 따라서 30대의 경우도 비구직 니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탈출률의 전반적인 감소와 진입률의 증가에 기인한다.

40대의 비구직 니트 증가도 탈출률의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2016년에서 2017년의 진입률 감소를 논외로 한다면 2013년부터 이어진 진입률 상승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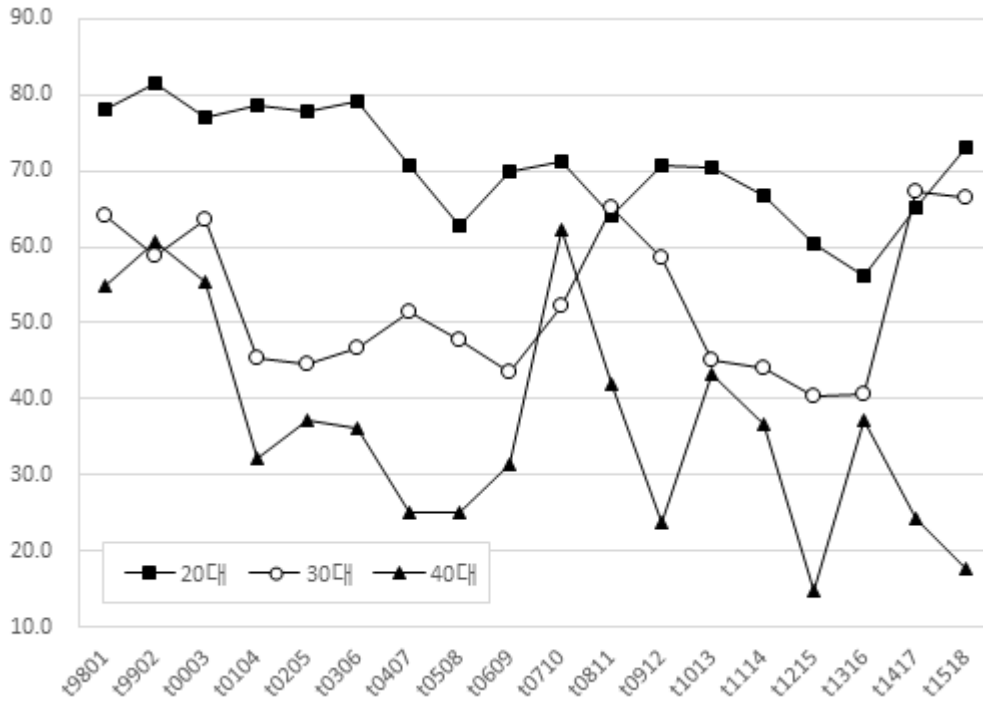
3. 비구직 니트(NEET) 탈출과 진입 : 3년 이행확률 분석

이제 이행확률 분석을 연간에서 3년간으로 확장해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이를 연령집단별로 구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들 두 그림에서 보듯이 보다 장기간에 걸쳐 관찰하더라도 20대 연령층의 비구직 니트 증가는 탈출률의 감소와 진입률의 상승 두 요인 모두에 기인하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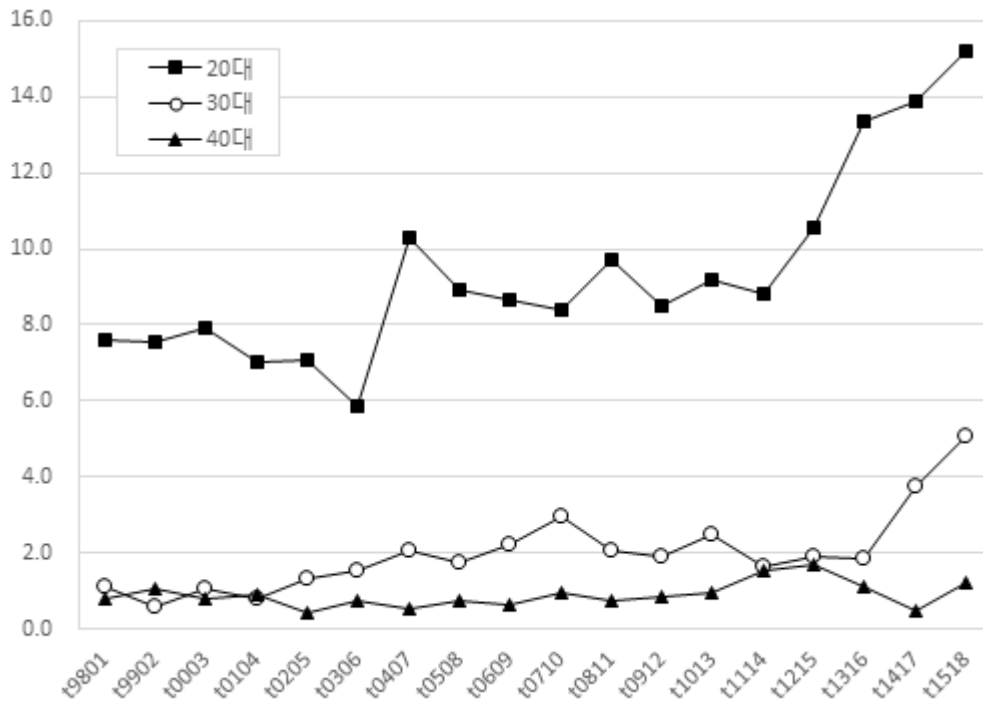
30대 연령층의 경우 탈출률은 상당히 큰 변동을 거듭하고 있는데, 뚜렷한 추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신 30대의 진입률은 <그림 12>에서 보듯이 분명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따라서 30대의 비구직 니트 증가는 주로 진입율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40대의 경우 <그림 11>에서 보듯이 탈출률이 강한 하락추세를 보인다. 반면 진입률은 전반적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40대의 비구직 니트 증가는 탈출률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그림 11> 연령집단별 니트 탈출률



<그림 12> 연령집단별 니트 진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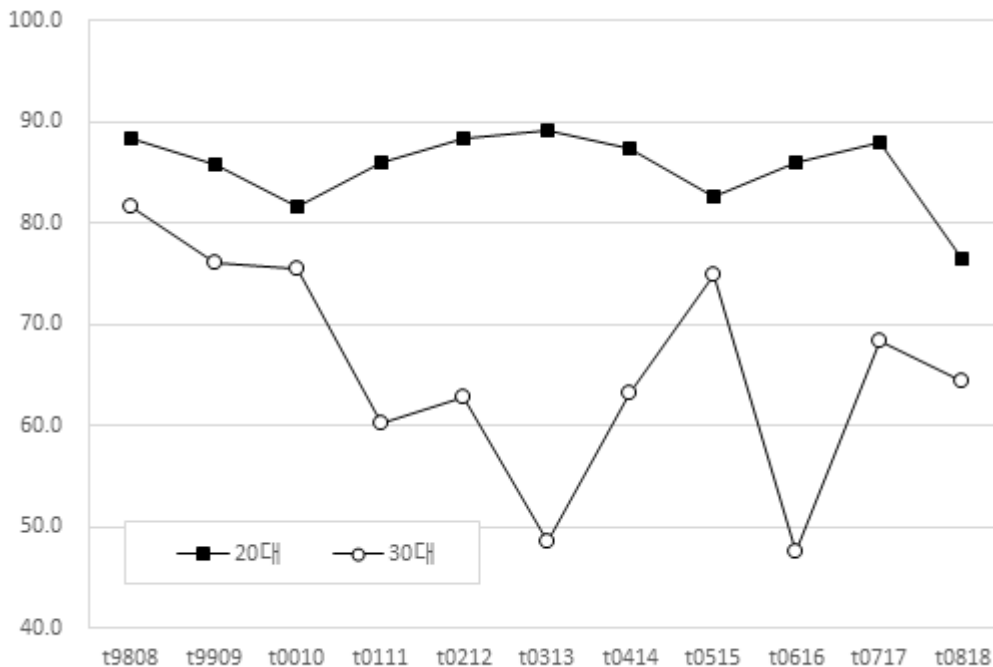
4. 비구직 니트(NEET) 탈출과 진입 : 10년 이행확률 분석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10년에 걸친 이행확률들을 구하여 분석해보도록 하자. KLIPS는 이러한 분석을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조사되어 왔다. <그림 13>은 비구직 니트에 있던 해당 연령층의 사람들이 10년 후 비구직 니트에서 탈출하는 비율, 즉 탈출확률을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림 14>는 비구직 니트가 아니었던 해당 연령층의 사람이 10년 후 비구직 니트가 될 확률을 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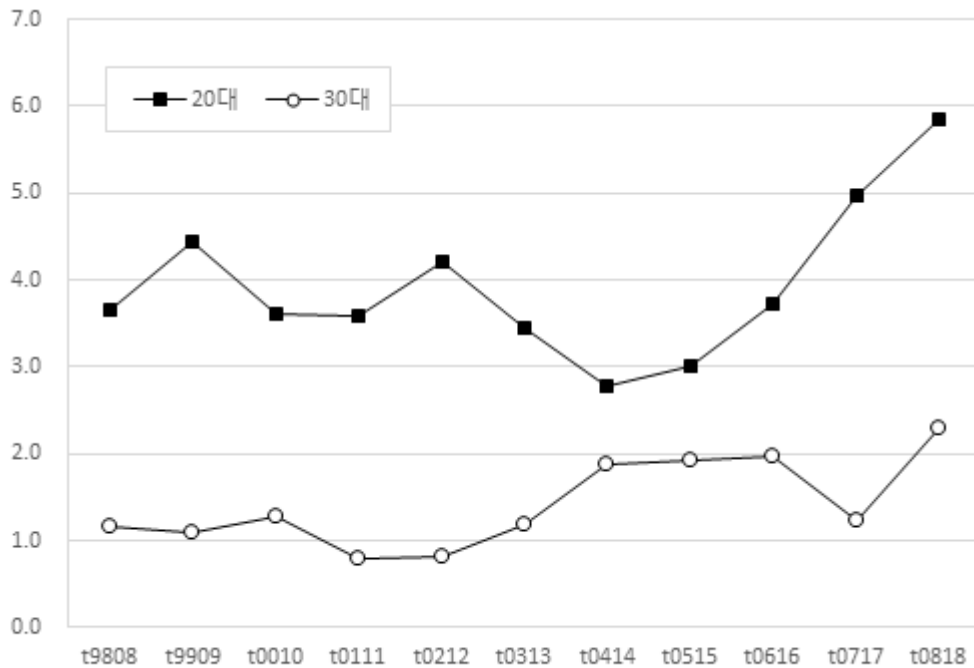
먼저 20대의 경우를 보면, 10년 탈출률에서 2008년에서 2018년으로 이행을 제외하면 뚜렷한 추세를 찾기 어렵다. 반면 10년 진입률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2006년부터 그러하다. 따라서 30대의 비구직 니트가 증가하는 것은 주로 20대에 비구직 니트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새로 비구직 니트로 진입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10년 진입 이행확률 증가는 2016년부터 2018년의 30대 비구직니트 증가와 더욱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2008년 20대 비구직 니트의 10년 후 탈출률 감소도 2018년 30대 비구직 니트 증가에 기여하고 있을 것이다.

반면 30대의 경우 비구직 니트 10년 탈출률이 감소하고 진입률은 증가하고 있어 두 요인이 모두 40대 비구직 니트의 증가의 유량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40대 중년에서 비구직 니트의 증가는 30대에 비구직 니트에 있던 사람들이 10년 후에도 그대로 비구직 니트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증가한 반면, 비구직 니트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10년 후 비구직 니트에게 될 가능성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13> 연령집단별 비구직 니트 탈출률



<그림 14> 연령집단별 비구직 니트 진입률



V. 결론

한국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년 니트(NEET) 관련 연구는 이제 한국을 넘어 전세계적인 학술 및 정책 연구로 발전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관련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OECD나 ILO 등의 국제기구들에서도 청년 니트 문제를 핵심적인 주제로 하여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청년 니트, 특히 청년 비구직 니트는 경기변동과 별 관계 없이 오랫동안 상승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청년 시절의 니트 경험은 당시 뿐만 아니라 6~9년이 경과한 후에도 이들의 취업확률을 떨어뜨리고 취업 시 임금수준을 낮추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니트를 경험하였던 청년이 중년이 되었을 때 여전히 니트에게 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시도는 먼저 니트(NEET)라는 개념을 이제까지의 접근들처럼 청년과 결부시켜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중년이나 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그 차원을 달리하려는 시도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청년 비구직 니트의 장기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비단 청년층 전체로서 뿐만 아니라 20대와

30대의 비구직 니트에 대해서도 분석한 결과, 이들 연령층 모두에서 비구직 니트는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20대와 30대의 비구직 니트는 40대 연령층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실제로 40대 중년층에서는 비구직 니트는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하여 2018년에 40대 중년 니트(NEET)는 20만 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었다.

니트라는 개념은 특정 시점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로 정의되므로, 저장(stock) 변수에 해당한다. 이러한 저량은 유량(flow)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저장인 비구직 니트의 증가가 유량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요인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비구직 니트 증가의 원인 가운데 중요한 하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년 니트의 증가는 청년 니트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30대에 니트를 경험한 사람들이 10년 후에 그러한 니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하락하고 있어 40대 중년의 비구직 니트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30대에 비구직 니트가 아니었던 사람들 가운데 10년 후에 비구직 니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 역시 40대 중년의 비구직 니트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 남재량(2013), 『청년 니트(NEET)의 노동시장 성과』,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남재량·김세움) 제3장,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12), 『고졸 NEET와 대졸 NEET』, 『노동리뷰』 4월호(통권 85호), pp.39~54.
- _____(2008),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06a),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노동연구원, 2006.2.
- _____(2006b),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4월호(통권 16호), pp.22~33.
- _____(2002), 『청년실업과 신규졸업자 실업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2.
- 통계청 MDIS, 『자료 이용 상의 주의사항』.
- G. Bruno, E. Marelli, and M. Signorelli et al., “The rise of NEET and Youth Unemployment in EU regions after the crisi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56, 2014
- ILO,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17.
- OECD, *Investing in Youth Japan*, 2018.
- _____, *Building skills for all in Australia*, 2017.
- _____, *Investing in Youth Norway*, 2017.
- _____, *Investing in Youth Sweden*, 2016.
- _____, *Investing in Youth Latvia*, 2015.
- _____, *Youth neither in employment education nor training*, 2014
- The Social Exclusion Unit,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1999.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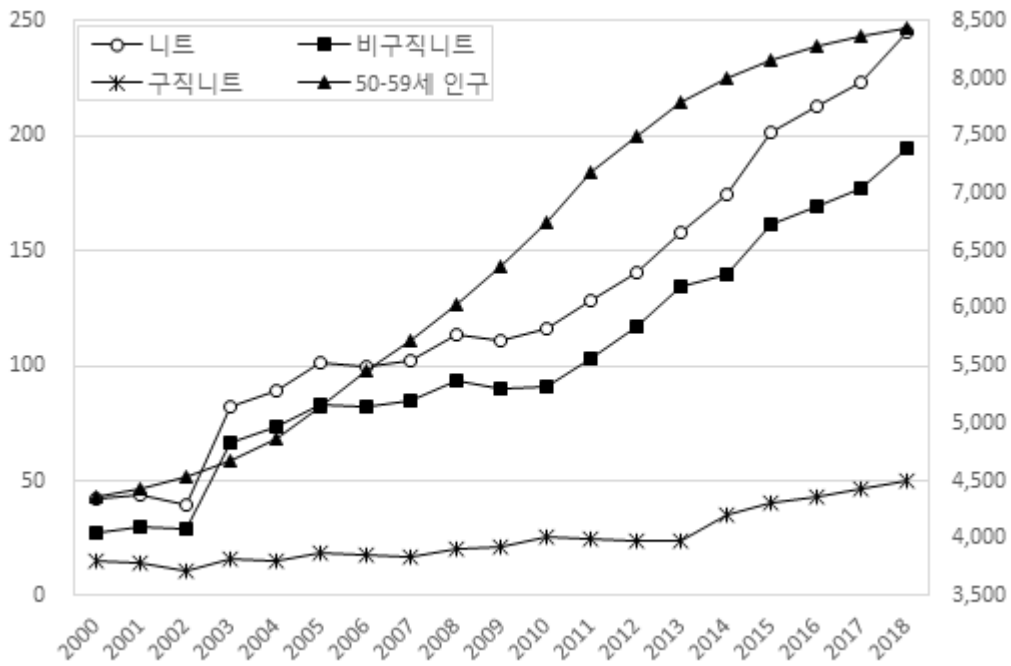
<부표 1> 연령집단별 비구직니트 비율

(단위 : %)

| | 15-34세 | 15-2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69세 |
|------|--------|--------|--------|--------|--------|--------|--------|
| 2000 | 3.0 | 3.8 | 4.3 | 0.8 | 0.5 | 0.6 | 0.8 |
| 2001 | 3.5 | 4.3 | 5.0 | 1.1 | 0.5 | 0.7 | 0.9 |
| 2002 | 3.4 | 4.3 | 5.0 | 1.1 | 0.6 | 0.6 | 1.0 |
| 2003 | 5.0 | 6.3 | 7.3 | 1.7 | 1.2 | 1.4 | 5.4 |
| 2004 | 5.5 | 6.8 | 8.1 | 2.0 | 1.2 | 1.5 | 4.6 |
| 2005 | 6.1 | 7.5 | 9.1 | 2.3 | 1.3 | 1.6 | 4.4 |
| 2006 | 6.3 | 7.7 | 9.6 | 2.5 | 1.4 | 1.5 | 4.0 |
| 2007 | 6.4 | 7.5 | 9.5 | 2.8 | 1.5 | 1.5 | 3.6 |
| 2008 | 6.6 | 7.7 | 9.8 | 3.0 | 1.5 | 1.5 | 3.3 |
| 2009 | 7.0 | 8.1 | 10.5 | 3.2 | 1.7 | 1.4 | 3.3 |
| 2010 | 7.2 | 8.5 | 10.9 | 3.1 | 1.6 | 1.3 | 3.0 |
| 2011 | 7.4 | 8.7 | 11.1 | 3.3 | 1.9 | 1.4 | 2.7 |
| 2012 | 7.4 | 8.7 | 11.4 | 3.3 | 1.9 | 1.6 | 2.4 |
| 2013 | 7.5 | 8.8 | 11.5 | 3.4 | 1.9 | 1.7 | 2.7 |
| 2014 | 7.0 | 8.3 | 10.8 | 3.4 | 1.8 | 1.7 | 2.8 |
| 2015 | 7.4 | 8.9 | 11.5 | 3.4 | 2.1 | 2.0 | 3.4 |
| 2016 | 7.5 | 8.8 | 11.2 | 3.6 | 2.3 | 2.1 | 3.3 |
| 2017 | 8.1 | 9.3 | 11.7 | 3.9 | 2.2 | 2.1 | 3.3 |
| 2018 | 8.5 | 9.7 | 12.2 | 4.1 | 2.3 | 2.3 | 3.4 |

<그림 A1> 50대 다투

(단위 : 천명)



<그림 A2> 60대 다투

(단위 : 천명)

